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무지에서 태어난 미혹은 최악의 재난을 잉태한 악마이다.

지켜봄과 알아차림을 항상 붙들고 있거라.

무명은 윤회계를 방랑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실 모든 존재들은 아주 작은 벌레라도 불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무명은 개체적인 자아와 현상이 실재하는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이는 애착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감정의 흐름을 만듭니다.

일반적인 적은 아무리 잔인한 적이라 할지라도, 이 생애를 넘어서까지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은 훨씬 더 무서운 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적 상승의 도움으로 적어도 진짜 적이 무엇인지는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월적인 지혜의 검을 휘둘러서 '나'에 집착하는 악마와 현상의 실재에 집착하는 악마를 모두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 2016 되살아나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 문화재청 26일 미륵사지서 '석탑 복원 착수식'

현존 국내 최고(最古) 최대(最大) 석탑인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이 복원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전라북도는 11월 26일 오후 1시 익산 미륵사지에서 '미륵사지 석탑 복원 착수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수식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이 일제강점기인 1915년 콘크리트 보수 이후 약 100여 년 만에 다시 제 모습을 찾는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미륵사지 석탑은 1915년 서쪽면 전체와 남쪽 북쪽면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당시 일제가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를 덧씌웠다. 원래 9층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너진 후엔 6층까지만 남았다. 문화재청은 해체 보수 작전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석탑을 복원할 계획으로 보수 직전 모습인 6층(높이 14.6m)까지 복원한다.

미륵사 석탑 복원은 1998년 구조안전 진단 결과, 보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나오며 진행되었다. 1999년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체 보수가 결정된 뒤 2001년 10월 31일 해체를 시작했다. 해체에서 발굴, 복원에 이르는 총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해체 중인 2009년 1월, 1층 심주석에서 사리장엄(舍利莊嚴)이 발견돼 석탑이 건립된 정확한 시기가 백제 무왕 재위 40년인 서기 639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삼국

유사>에 백제 무왕 왕비인 신라 선화 공주 발원으로 지었다는 기록과 달리 백제인 왕후의 발원으로 건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전라북도는 2010년 석탑의 해체와 발굴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날 착수식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

### 1998년 복원 계획 이후

### 3D기법 등 동원해 준비

### 부재 연결 티타늄 활용

### 전통·첨단기법으로 복원

북도, 익산시 등 관계인사와 일반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 본 행사, 사리장엄 특별전 개막식 순으로 진행된다. 착수식 본행사는 전통무용과 무왕행차 재현 공연을 시작으로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사업 계획보고와 심조석 놓기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미륵사 석탑, 어떻게 복원되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통 및 첨단 기술을 함께 활용해 탑을 복원한다. 옛 부재 중 부러진 돌은 티타늄으로 연결하고 부스러질 수 있는 돌은 특수약품으로 보존 처리



2016년 복원 예정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조감도. 복원에는 전통과 첨단기법이 동원된다.

해 80% 가량을 재사용할 계획이다. 새로 쓰이는 석재는 옛 부재와 같은 화강암 재질의 황동석을 전통방식으로 가공해 사용한다.

그동안 복원 수준을 놓고 9층까지 복원하자는 입장과 6층까지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며 논쟁이 일기도 했지만 6층 전체 복원만 하더라도 새로운 부재가 61% 가량 들어가는 문제로 6층 부분 복원으로 결론 내려졌다. 복원이 완료되면 해체 전 기음으로 인해 14.24m였던 탑의 높이가 14.40m로 약간 높아진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체 이전 탑은 1

층까지만 온전했으며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면은 1층부터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며 "2층까지 원형을 추정해 완전 복원하고 3층부터 옛 부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탑 부재는 현재 적심(積心·내부를 채운 돌)과 기단, 석축까지 합쳐 3000여점에 이르며 부재 무게만 1800t에 달한다. 전체 체적이 불국사 석가탑의 20배 규모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문화재보수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첨단 IT를 동원해 3차원 설계도를 마련한 상태다. 탑을 해체하며 이미 광파측량기 및 광대역 3차원(D)스캐너 등 장비를 동원해 모든 석재 위치를 3D로 기록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원형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 IT를 활발하게 접목하고 있다"며 "원형과의 오차가 최대 5mm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체하며 수집한 기상변화 등의 데이터를 통계 기법으로 분석한 자료와 탑 하단의 광섬유 센터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유지관리에 나선다.

한편, 현재 미륵사지 석탑 주변에는 내부 관람이 가능한 가설 덧집이 설치되어 있어 석탑의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복원과 함께 인근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북도, 익산시가 공동 개최하는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특별전'이 2014년 3월 30일까지 계속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차장 직제 축소... 첫 여성 차장 임명

##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일반직 정기 인사 단행

### 노동위·총평위, 사회부 복귀

### 문화사업단, 총무기관에 편입

### 40여 명 이동... 직제 개편도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중앙총무기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직 총무원 인사 이동과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

조계종은 11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불기 2557년 중앙총무기관 일반직 총무원 인사를 결정했다. 이번 인사는 개편된 중앙총무기관 직제 규정에 따라 이뤄져 4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부서 이동을 하게 됐다.

먼저, 총무·기획·포교·교육·문화 등 기존 5명의 차장직이 총무·포교·교육 3명으로 축소됐다. 관심을 모았던 총무 차장에는 이석심 기획차장이 임명됐으며,

김영일 총무차장은 문화재연구소 사무국장직으로 보직 이동했다. 교육원 김병주 교육차장은 유임됐으며, 포교원 포교차장에는 윤영희 문화사업단 팀장으로 결정됐다. 박희승 문화부 차장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 총무팀장은 김성동 교육원 교육팀장으로 결정됐으며, 사찰교무팀장은 윤승환 팀장이 유임됐다. 기획실 대외협력팀장에는 박주현 행정관이, 법무감사팀은 김한일 총무팀장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용구 기획팀장을 비롯해 황충기 재무팀장과 정종모 시설관리팀장, 문화부의 정영탁 문화팀장은 유임됐다.

이번 직제개편과 인사 이동으로 노동위원회와 종교평화위원회는 사회부로 복귀하게 됐으며, 사회부 정원도 2명이 늘어났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별도의 사단법

인으로 남아 활동하게 된다.

자성과 쇄신결사추진본부는 화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팀장 1명과 팀원 4명으로 재편됐다. 팀장에는 이상봉 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이, 팀원으로는 성만재 총무부 총무팀 행정관, 김은혜 사서실 정책특보실 행정관, 홍선영 포교원 포교부 주임으로 구성됐다.

또한 조계사 성역화 사업을 담당할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추진위원회에는 팀장 1명과 팀원 1명이 배정됐으나, 아직 공식인 상황이다.

조계사와 봉은사, 보문사, 선본사, 약사사 등 5개 직영사찰 총무실장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직원 33명은 중앙총무기관 정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조계종 중앙총무기관은 총무원 120명과 문화사업단 및 승가복지회 등 산하기관 총무원 60명 등 총 180명으로 조정됐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불교와 사회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조계종 화쟁위 27일 토론회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11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이자 조계종 화쟁위 기획위원인 이상근 소장이 사회를 맡아 이호근 전북대 교수와 백승권 전 화쟁위 사무국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정주진 박사 등이 발제하고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이호근 교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및 외국 사례로 본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발제하고, 백승권 전 국장은 '화쟁위원회 사례로 본 사회적 대화', 정주진 박사는 '사회적 대화에서의 종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신종일 기자

## Chinese as Second Language

#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2013년 12월 27일

###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